

지역 소식 통

고창군, 세계유산도시협의회 제31차 정기회의의 성료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회장 도시 고창군)가 지난 17일 고창 석정웰파크호텔 및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갯벌에서 제3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회장도시인 고창군수, 창녕군수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여 세계유산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한 다양한 현안과 정책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현재 15대 회장도시인 고창군이 제16대 회장도시로 연임되어 내년까지 주도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세계유산 홍보·활용을 위한 △한국세계유산도시 대표축제 순회 홍보관 운영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홍보영상 제작 △한국세계유산도시 전국일주 유산 투어 운영 등 내년도 상반기 공동사업 3건의 결되어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태인면 일원 신규 일반산업단지 지정

정읍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정읍시는 태인면 일원 108만 3000㎡ 부지가 지난 10월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태인 신규 일반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됐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완료, 태인면 일원에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지정된 산업단지는 국비 68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147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지정면적은 108만 3000㎡·산업시설 면적은 65만 1000㎡다. 이 사업은 지난 9월 국토부의 수요입증 조정회의와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모두 통과했다.

새롭게 조성될 태인산단은 태인IC와 국도가 인접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인근 산업단지·농공단지의 연계가 쉬워 기업 간 협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입지로 평가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위도 앞바다에 새로운 미래 열린다

한해풍, 전북 서남권 400MW 해상풍력 본격 추진

한국해상풍력(주)이 한해풍이 전북 서남권 400MW 시범사업 우선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한해풍은 2011년 정부의 서남해 해상풍력 계획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실증단지 운영을 통해 기술력 축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5년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이 된 것.

특히 지난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 지난 9월 정부로부터 사업자 지위를 확보,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총사업비 약 333천억 원, 공사 기간 78개월이며, 해상풍력 단지 건설을 넘어 서남해 2.4GW 집적화단지 조성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수록 어업 손실 보상과 지원사업이 가속화되고, 주민 이익공유금만 연간 243억 원이며, 회사는 △지역 인재 우선 채용 △지역 선박 및 업체 활용 △주민 이익공유 제도 시행

등을 통해 지역 상생 모델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해상풍력 관련 기업 유치 RE100 국가선진 조성, 지방세 확충,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해풍은 지역 축제 후원과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지역민과의 신뢰를 다져왔다.

한해풍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업 선정은 지역민과 함께 성장하는 해상풍력의 시작이라며 "투명하고 정직한 사업 추진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골목형 상점가 지정 · 스마트수산업 육성

임종훈 고창군의원, 지역경제 회복 위한 조례 대표발의



임종훈 의원

고창군의회 임종훈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제317회 임시회(7월 7~18일)와 제319회 임시회(9월 22~30일)에서 각각 '고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와 '고창군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지역의 미래 먹거리 발굴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제319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고창군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2년여간 준비된 것으로 전국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이며, 기초자치단체를 통틀어서도 여수시, 통영시에 이어 세 번째로 제정된 선도적인 조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번 조례는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례에 따르면, 스마트수산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생산기반시설 조성·관리, 생산·유통 촉진 및 가공 시설 설치, 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등 다방면에 걸쳐 필요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침체된 지역 수산업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전망이다. 고창군의 대표 수산물인 장어, 김, 바지락 그리고 천일염 생산에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하는 다양한 혁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이끌어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제정의 성과를 이어받는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수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동시에, 전 고창군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임종훈 의원은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인 소상공인 지원에도 집중했다.

지난 7월 제317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고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는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맞춤형 지원책이다.

임종훈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두 조례는 전시기 정책이 아닌, 평소 현장에서 직접 듣고 체감한 어민과 소상공인 여러분의 절실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오랜 시간 고민한 결과물이라며, 조례가 차질 없이 시행되어 고창의 수산업과 골목상권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복지 · 환경 정책으로 삶의 질 높인다”

정읍시 복지환경국 정례브리핑

정읍시가 국가유공자 지원 강화부터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까지, 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다채로운 복지·환경 정책을 발표했다.

시는 지난 17일 김형숙 복지환경국장 주재로 언론인 정례브리핑을 열고, 시민 중심의 생활 제감형 사업들을 소개하며 시민 중심 으뜸 정읍을 향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 국장은 먼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호국보훈수당을 2만원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는 월 14만원, 그 외 대상자는 12만원을 받고 있다.

복지 분야에서는 위기가구 1152건에 긴급 생계·의료비를 지원했으며, AI 안부전화 서비스·스마트 돌봄플러그 지원 등으로 고독사를 예방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했다.



정읍시가 국가유공자 지원 강화부터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까지, 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다채로운 복지·환경 정책을 발표했다.

오는 11월 16일에는 정읍살내체육관에서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모든 가족이 함께 어울리는 '제2회 가족대축제'를 열어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또한 지난 9월 문을 연 내장산 문

화광장 '어린이 기적의 놀이터'와 100세 이상 어르신께 100만원 한도의 장수축하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생활인구 전복 1위 '우뚱'

인구감소 위기 속에서 정읍시가 '생활인구'를 늘리는 체류형 도시로의 전환에 성공하며 새로운 활력을 찾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생활인구' 선정 결과, 정읍시가 전북 10개 인구감소지역 중 2024년 4분기에 이어 연속 1위를 차지하며 그 성과를 입증했다.

'생활인구'는 기존 주민등록인구에 통근·통학·관광 등 목적으로 지역을 머무는 인구까지 더한 새로운 인구 개념이다.

실제 지역의 활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정부의 재정 지원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정읍시는 올 1분기 94만 2495명(월 평균 31만 4165명)의 생활인구를 기록했다.

특히 이번 조사의 세부 지표들은 정읍이 가진 매력을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준다. 체류인구 1인당 평균 카드 사용액은 15만 1000원으로, 도내 인구감소지역 평균(12만 2000 원)을 훌쩍 뛰어넘어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을 증명했다.

평균 체류일수는 3.9일(전국 평균 3.5일), 숙박일수는 4.9일(전국 평균 3.9일)로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이는 정읍이 당일치기 여행자를 넘어 장기간 머물며 즐길 거리가 풍부한 체류형 관광도시로 변모했음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48.6%에 달하는 높은 재방문율이다. 전국 평균(39.3%)보다 9%p 이상 높은 수치로, 방문객 10명 중 거의 5명이 정읍을 다시 찾는 셈이다. 이는 한 번 오면 또 오고 싶은 도시'라는 정읍시의 목표가 성공적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정읍=김대환 기자

‘2025 부안붉은노을축제’ 24일 개막

‘와인, 재즈 그리고 붉은 노을’ 주제… 프로그램 다채

2025 부안붉은노을축제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부안 변산해수욕장에서 열린다.

‘와인, 재즈 그리고 붉은 노을’을 주제로, 레드와인페스타, 제3회 부안붉은노을동요제, 붉은노을 재즈페스티벌, 스카이 갤러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레드와인 페스타’는 부안 오디와인, 세계와인을 아름다운 변산의 자연경관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감성 프로그램으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말을 음료인 오디에이드까지 준비되어 있어 자가용을 가져온 방문객들도 부담없이 축제를 즐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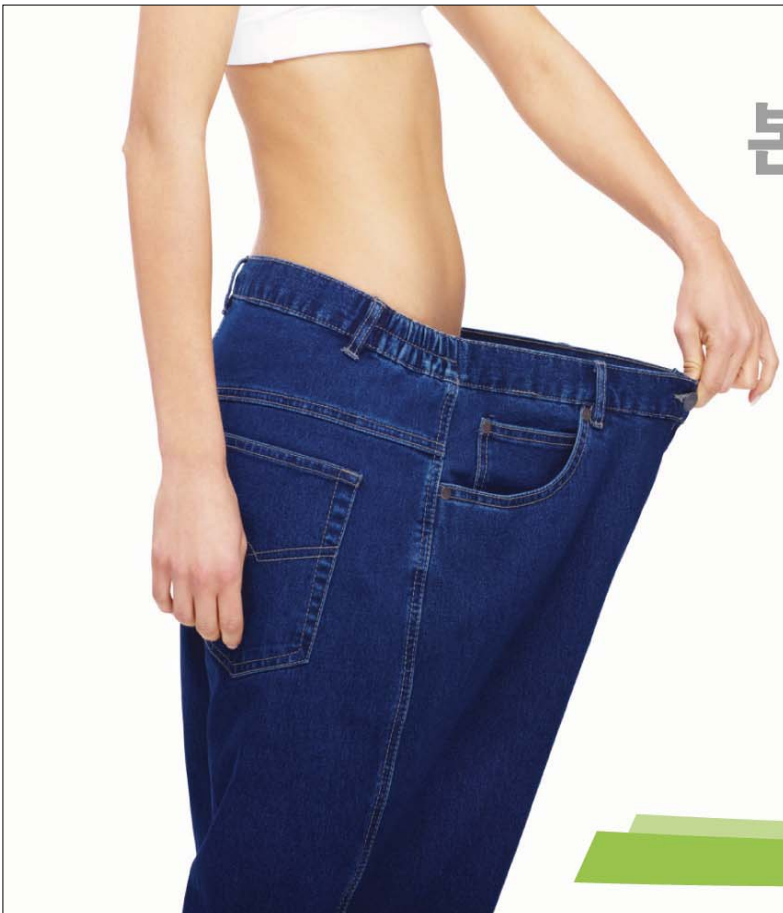
특히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부안붉은노을동요제에는 189팀이 접수한 가운데 치열한 심사를 거쳐 통과한 25팀

이 최종 무대에 오른다. 25일, 26일 양일간 예선과 결선이 순차적으로 치러지며 참가 어린이들의 실력이 상당해 붉은노을축제의 또 다른 관람포인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변산해수욕장 모래사장에 조성되는 대형 모래조각도 새로운 볼거리다. 부안군 대표축제 캐릭터인 '부안몬 프렌즈'를 주제로 가로 12미터, 높이 8미터의 대형 모래조각이 붉은노을축제만의 특별한 포토존이 될 전망이다.

또한 변산해수욕장의 하늘을 수놓는 대형연과 야간에 펼쳐지는 LED연의 향연인 '스카이 갤러리'는 어른들에게는 어릴적 추억을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추억을 선물할 기회이며, 24일 불꽃놀이 후에는 '여름날 우리', 25일 불꽃놀이 후에는 '썸'이라는 선셋 시네마를 진행해 가을밤의 정취를 더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